

# 친애하는 정보보호뉴스 독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정보보호뉴스를 아껴 주신 독자 여러분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해 중장기 사업전략과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통한 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 새해는 변화의 물결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강자에겐 기회가 되고, 준비된 자에게는 도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IT서비스 기술 발전과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원에 대한 외부의 기대와 사업의 중요성 또한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첨병으로서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KISA 사업전략 2010”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2010년까지 우리 원의 목표는 ‘국가정보보호수준 세계 5위’, ‘고객만족 및 서비스 품질수준 산하기관 3위’, ‘개인정보 노출수준 07년대비 1/10로 감축’입니다.

특히, 사업전략 2년차가 되는 올해엔 목표에 가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위협을 예측하여 정보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보호 핵심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u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여 실효성있게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u-IT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팸수신량과 개인정보 노출수준을 감축하는 한편,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높여,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5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국을 목표로 아시아 최고의 평가기술을 보유하여, 글로벌 경쟁력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광대역융합네트워크 종합해킹대응 시스템을 통해 침해사고 피해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한편, 기존에 협력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 선도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강화는 물론, 유비쿼터스 사회를 준비하는 국내 IT관련 유관기관, 유관 산업체 및 산업 협회, 각종 학술단체 및 대학, 그리고 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보호뉴스 독자 여러분!

우리 원이 계획한 여러 목표를 성실히 수행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원과 정보보호뉴스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원이 계획한 여러 가지 목표는 우리 원 직원들의 노력과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실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사람의 기원은 기원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기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의 각오와 다짐이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보보호뉴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정보보호뉴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황 중 연